

클래식 앙상블로 힐링 시간 선사

문화공간 이룸서 오늘 '전주 시민을 위한 힐링콘서트-플립' 공연

다양한 공연기획으로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꽃을 피워드리는 문화공간 이룸에서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전주 시민을 위한 힐링콘서트-플립' 공연이 열린다. 코로나19를 잘 이겨낸 전주 시민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 개최로 매력적인 클래식 앙상블 음악을 통한 마음치유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획하게 된 무대로 국내외 최정상 연주자들의 다양한 구성의 클래식 앙상블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전주 시민들이 클래식 음악을 편하고 쉽게 즐기고 감상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서울대학교 실기 수석 및 우등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연을 비롯해 Theobald Bohm 국제콩쿠르 3위를 입상한 플루티스트 나채원, 독일 뒤셀도르프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 네덜란드 Charlotte Hennen 국제콩쿨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정진희, 추계예술대학교 교

수인 비올리니스트 서수민, 쾰른콩쿠르에서 입상한 비올리니스트 이수민, Julio Cardona International Competition에서 우승한 첼리스트 최경은, 서울대학교 교수인 첼리스트 김민지, 동덕여대 예술대학 피아노과 교수인 피아니스트 이민영이 출연하여 에네스쿠의 Cantabile et Presto, 하이든의 플루트 퀸트 Op.5의 No.5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유명하고도 작은 규모의 교향곡이라고도 할 수 있을만큼의 감동을 주는 슈만의 피아노 퀸트 Op.44 작품을 연주한다.

전주시와 사단법인 더문화, 비바체 앙상블 페스티벌, 월간 객석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산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던 시민과 문화 소외계층에게 음악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동시에 치유의 역할을 해주는 클래식 앙상블 공연을 통해 힐링의 시간, 용기와 치유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훈 기자



전주 시민을 위한 힐링콘서트-플립 포스터

제4회 대한민국 판놀이 펼쳐진다

국립민속국악원, 8월 3~6일 별별창극·명불허전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별별창극'과 폐막공연 '명불허전' 공연을 선보인다. 8월 3일 '별별창극'에는 판소리를 바탕으로 4인의 코러스가 함께하는 1인 모노드라마 형식의 공연인 판소리 앙상블 하랑가의 '콜비츠와의 대화' 공연이 개최된다. 콜비츠 역(방수미)과 판소리 앙상블 하랑가 4인(이효인, 양혜원, 박유빈, 소주현)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다. 8월 6일 '명불허전'에는 이 시대 최고의 예인을 초청,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과 함께 신명난 판을 펼쳐 보이는데, 우리시대 최고의 명인 김무길, 정화영, 원장현, 송화자, 김영길, 이동훈이 살아있는 즉흥연주 무대인 <시나위>를 시작으로, 신영희 명창의 <춘향가 중 스물치고>, 국악연주단의 기악합주 <결음마다 꽃이 피고>, 문정근 명부의 <전라삼현승무>, 왕기철, 왕기석, 유수정 명창이 선보이는 판소리 입체창 <흥보가 중 화초장 대목>, 진유림 명부의 <살풀이>, 김일구 명창의 <심청가 중 모녀상봉 대목>, 남도민요 <유자백이 흥타령 삼산은 반락 개고리 타령> 등이 시대 최고 예인들의 풍



왕기석 명창

성한 레퍼토리를 만나 볼 수 있다. 사회에는 박애리 명창이 함께한다. '별별창극' 공연시간은 평일은 오후 7시, 명불허전은 오후 4시이며, 공연 장소는 춘향문화예술회관으로, 7세 이상이면 관람 할 수 있으며, 관람문의 및 예약은 전화(063-620-2329) 혹은 카카오톡 채널(상담원과 대화)을 통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자개 공예품 만들기 진행

8월 6일 성인 대상... 29일~8월 31일 선착순 예약 신청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8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문화행사로 '자개 공예품 만들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6일 오후 2시와 4시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수업 당 20명씩 총 40명을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참가 희망자는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jonju.museum.go.kr)에서 예약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한편 자개는 조개껍질을 부르는 고유어로, 자개공예는 얇게 간 조개껍질을 다양한 형태로 올려내어 기물(器物)의 표면에 붙여 표현하는

공예품을 말한다. 이번 행사에는 자개를 소재로 한 인테리어 장식 '모빌(mobile)'을 만들 예정이며, 동근 형태로 가공된 여러 개의 자개를 조합해 개성 넘치는 자신만의 맞춤형 공예품을 제작할 예정이다. 홍진근 관장은 "이번 체험행사는 전통공예라고만 생각한 자개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예술적 감각은 물론 소품으로서의 활용도까지 모두 갖춘 자개공예의 멋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취·창업 동기부여 여성 독립영화 관람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서 '로스트 도터'

(재)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정희 센터장)는 27일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취·창업 희망여성 60여 명을 대상으로 여성 독립영화를 관람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번 영화관람 행사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을 갖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용기를 건네는 응원의 메시지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여성독립영화 '로스트 도터'는 엄마라는 이유로 전적인 희생을 요구 당하는 여성들의 삶을 고찰해 나간다. 또한 엄마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질식할 것 같은 순간들을 견뎌내고 다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 온 여성들의 삶을 그린 영화다.

최연주 구직자는 "센터를 통해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수료하고 현재 구직활동 중이다. 그동안 임신과 육아에 10여년은 나 자신을 잊고 살았는데 이번 영화관람을 통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다"면서 "엄마가 행복해야 가족 모두가 행복하다. 오늘 나는 무척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정희 센터장은 "여성들이 결혼과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됐는데, 여성인력 활용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며, 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으로 취·창업에 성공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최초 전시지원 프로젝트 '이충훈 첫 개인전'

8월 5일까지 '사진과 글로 껴매는 하루'

전북문화관광재단은 8월 5일까지 이충훈 첫 개인전 '사진과 글로 껴매는 하루'를 전북예술회관 지하 1층 특별전시실에서 선보인다. 이에 따르면 재단의 최초 전시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첫 개인전을 열게 된 이충훈 작가의 사진 작품들은 흑백이거나 차분한 색조의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작가는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나 자신의 예술에 대한 호기심과 생활의 성찰을 담아내고 싶었다"며 "그러다 보니 아름다운 사진보다는 내 맘의 먹먹함을 표현하는 사진을 어쩔 수 없이 찍게 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전시장의 관람객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작품 앞에서 두 번 멈춰서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문의는 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063-230-7418)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이충훈 '어쩔 도리없이 한다'

